

“우리나라 동성연애 얼마나 심각한가?”



정 동 철 /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일부 대학에선 동성애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고 그래서 「성(性)과 남녀관계」라는 교과 과목이 인기리에 진행된다. 그 내용 중엔 「동성애」에 관한 것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의를 맡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임상가, 특히 한국의 성교육, 성문화, 성치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자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에이즈가 거론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동성애가 절대적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었고 지금도 그 여운은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성애」 사이에도 예외없이 에이즈가 번져가고 있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물경 25%의 인구가 이성애를 통해

감염되어 있는 실정이 밝혀져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는 그만큼 퇴색되는가 싶지만 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 대상을 구분지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안된다던가, 상위 계층을 상대로 사랑을 해서 안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동성과 이성을 갈라놓고 이성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발생이 아닐까요?”

“사람은 사랑할 자유가 있고 그 대상은 누가 되던 역시 두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간섭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은 사랑할 자유가 있고 그 대상은
누가 되든 역시 두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간섭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쏟아지는 질문은 반드시 대학 강의실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상의 제한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입장에 있으며 그들은 몰려다니며 동가속 서가식 「자유롭게」살아가고 있으며 미국 정신의학 진단분류표에 「동성애」라는 진단명이 삭제된 것은 1980년의 일이다. 더 이상 병적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알다시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군입대를 찬성한다고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과 현실사이의 새로운 방향을 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에서 보듯 여권의 주장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결과가 가정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빠른 것처럼 동성애 역시 앞에서 강조하는 「자유」라는 포장속에 험거운 사회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자유라는 단어 속에 공동체 생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본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불연속적이다. 한계상황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어떤 자유도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 에로티즘이 갖는 궁극적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자는 사회학자가 아니다. 임

상가로서 동성애가 갖는 정신적 방향과 혼돈이 즐겁게 살아야 할 삶을 번뇌와 죄책감과 그리고 육체적 병을 동반하면서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환경적 조류에 휩쓸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잃은 뒤라 결국 자살과 같은 극단적 좌절감을 경험해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동으로 역설적 모험주의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찾게 된다.

해답은 다원화시대의 자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주변여건이 인식의 변화를 갖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주의라던가, 상업 제일주의로부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 본다.

성교육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남녀간의 차이점을 해부, 생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인간관계,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랑의 의미와 더불어 성적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본다. A

(협회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 중에서 발췌)

